

특집

사육단계별로 보는 겨울철 폐사 감소 대책



김남운 농장장
삼육양돈단지

모돈 폐사의 원인과 관리 요점

모돈의 폐사는 아주 민감한 문제이다.

십수년을 돼지와 함께 살아오면서 ‘매일 매일이 시작이다.’라는 마음가짐이지만 규모(사육두수)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

어느날 갑자기 우리를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맥빠지게 하는 것이 모돈의 폐사이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모돈 폐사나 도태의 원인이 모돈의 연산성과 생산성에 크나큰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일을 하는 대개의 관리자가 너무 안일하게 접근하고, 원인 분석에 따른 재발생에 대한 대책도 없이 잊혀져 버린다는 것이다. 언젠가 자료에서 보니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요인들이 모돈의 사망률을 증가시켜 비육 농장에서의 모돈 폐사율이 4~6%, 더는 12%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보았다.

이 얼마나 많은 수인가?

잠깐 계산해 보자. 내 농장의 모돈수 그리고 4~6%?

예를 들면 350두의 모돈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연간 14~21두, 이 두수는 폐사두수만이다. 여기에다 도태수가 포함되면… 휴~우 이제 필자가 모돈 폐사의 원인과 관리 요점을 기술하고자 한다.

폐사의 원인쪽은 전문성을 요하는 사안이라 간단하게 정리하고, 주로 관리 요점을 주제로 현장에서의 모돈 폐사를 줄일 수 있는 사



▲정말 안타까운 것은 모돈 폐사나 도태의 원인이 모돈의 연산성과 생산성에 크나큰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일을 하는 대개의 관리자가 너무 안일하게 접근하고, 원인 분석에 따른 재발생에 대한 대책도 없이 잊혀져 버린다는 것이다.

<표1> 지난 3년간 모돈 폐사 기록

1999년도(상시모돈수 355두)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폐사율
두수	2	1	2	1		2	1		1	1	2	1	14	3.9%

2000년도(상시모돈수 355두)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폐사율
두수		2		2	3	1		2	1	1			12	3.3%

2001년도(상시모돈 390두)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폐사율
두수	2			2		1	1	1	2				9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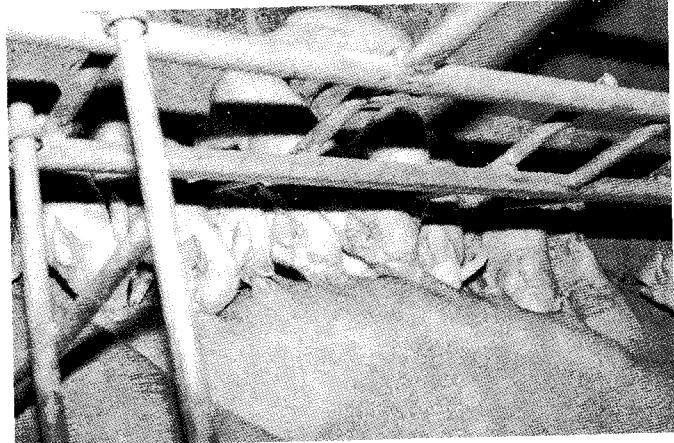
양관리와 마음 자세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모돈관리의 또 다른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으면 하는 마음 뿐이다. 모돈 폐사의 원인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들고, 농장마다 그 차이는 있을 것이나, 굳이 유형별로 나누자면,

- 질병에 의한 폐사
- 급사
- 스트레스 증후군에 의한 쇼크사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질병에 의한 폐사나 급사 또는 스트레스성 폐사도 관리자의 자질과 관리수준의 향상으로 예방 또는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첫째가 돼지를 보는 관리자의 관찰안목이다.

관리자는 1일 3회 이상 전 모돈의 개체 개체를 확인해야 한다. 꼭 일부러 시간을 내서



살펴볼 수는 없더라도 아침사료 급여 후, 점심시간 바로 전 또는 휴식이 끝난 후 모돈을 관찰함으로써 오후 일과를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오후사료 급여 후 체식사항, 활력발병의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돈 발견 그 즉시 치료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관리자는 밤 10시 이후 한번 더 모돈의 개체점검을 끝으로 일과를 마무리해야 한다. 야간근무자가

있는 규모가 큰 농장은 이상돈 및 처리사항을 인수인계할 수 있어 편리함도 있지만, 대개의 농장은 그렇지 못해 농장 관리자의 확고한 의지와 능동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필자 또한 다년간 지속적인 관리를 해오고 있으며, 해가 갈수록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둘째, 정기적인 투약 프로

특집 : 겨울철 폐사 감소 대책

그램을 만들라.

관리자는 모돈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후, 내 농장에 맞는 크리닝 계획을 세운다. 일교차가 10°C 이상 나는 봄, 가을은 물론 고온 스트레스가 심한 최고의 고온 기에 고열량사료+소화효소제+항생제를 투여함으로 돈군 전체를 건강하게 가져갈 수 있다.

셋째,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결정이다.

모돈 폐사의 대부분은 관리

자의 판단 미숙과 신속한 결정 부재에서 시작된다. 어떠한 상황에도 항상 예고되는 징후가 있는데 식불돈이나 무기력한 돼지가 그것이다.

발생 즉시 개체표식 및 기록을 하고 체온 체크와 치료를 해야 하며, 이를 이상 지나도 호전되는 징후가 없으면 도태를 결정해야 한다. 최초 발견이 늦었거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식불돈이 하루 이상, 무기력한 돼지가 한나절 이상 방치되었을 경우 2차적인 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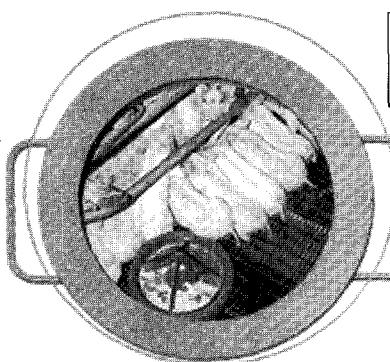
합요인으로 인한 폐사나 도태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음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이제 마무리에 앞서 본 농장에 지난 3년간 모돈 폐사의 기록을 올려 보려고 한다. 비교와 참고가 되었음 하는 바램이고 항상 생각하는 관리자, 즐겁게 일하는 관리자, 전문성과 정예화된 관리자로 거듭나 양돈사양에 꽃이 되기를 빈다. **양돈**

양돈기계시설은 대명 ENG와 함께 하십시오

최신화 된 시설 · 철저한 A/S

한번 고객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취급
풀목

스크레퍼(로프식, 와이어식), 스크류(O형, U형)
자동급이기, 원치 커텐

대 명 엔 지 니 어 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1가 356-1 (전주공단)
전화 : (063)214-1530 팩스 : (063)214-2530
휴대폰 : 011-695-9430 대표 : 김 용 근